



‘실전과 같이’



2026 을지연습 둘째 날인 19일, 정읍시 제2청사에서 2026년 을지연습 연계 드론테러 대응 실제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에 임하고 있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 온 힘

소재지 논의 본격화... 정부, 기반시설·교육과정 전문위 우선 가동

도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에 맞춰 남원에 설립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립의과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소재지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남원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반시설·교육과정·운영체계·의무복무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의전원의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일정을 감안해 기반시설과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우선 가동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소재지 선정과 설계·건축계획 등을,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입지와 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면서 국립의전원 설립 지역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국립의전원이 단순한 의사양성기관이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남원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지역으로, 그동안 축적된 정책적·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남원이 국립의전원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을 정부와 설립준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학교 설립뿐 아니라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할 교육과정과 임상 실습체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과 임상실습이 전북지역에서 원활하

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남원시는 의료·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부지와 교육과정, 임상실습체계,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국립의전원 설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도의회와 정치권을 비롯해 의료계와 학계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남원 설립의 당위성과 국가적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정부와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지역의 역할을 겹잡지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국립의전원의 출발점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데 있다"며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설립돼 공공의료 인력양성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누구나 함께 누리는 전주 여행’

시, '두리여행'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맞춤형 기회 제공

10월까지 총 9회 운영... '행복 여행' 사업과 연계 추진

전주시와 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윤선중)이 '누구나 함께 누리는 관광복지 실현'을 위해 여행에 제약이 겪는 관광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관광재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2026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사업인 '전주두리여행'을 총 9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주두리여행'은 언어·문화·환경적 제약 등으로 관광 참여가 어려운 내·외국인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을 통해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리여행'은 '버무블'과 '스머돌'을 통해 전주의 문화에 깊이 몰입하는 체험형 관광과 순우리말 '두리(함께)'의 의미를 담아 누구나 차별 없이 어우러지는 포용적 관광의 가

치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재단은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 △보육원 아동·청소년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저소득층 △장애인 등 총 6개 유형의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대상별 특성과 여행 여건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운영한다.

먼저 전주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과 보육원 아동·청소년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을 방문하는 1박 2일 여행을 지원해 새로운 지역과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자녀가정과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장애인에게는 전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주의 역사·문화·전통·미식 등 대표 관광자원을 중심



으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단은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을 GKL사회공헌재단의 '우리동네 문화탐방' 및 '행복 여행'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전주를 방문하는 참가자들의 관광 활동이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관광 복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이만호 기자

‘자폭 무인기가 공격’... 대응 역량 키운다

정읍시 제2청사에서 2026 을지연습 연계 드론테러 대응 실제훈련

폭발물 제거·공격 조종자 제압·인명 구조·응급처치 등 진행

정읍시가 자폭형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청사에 폭발과 화재,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벌였다.

시는 19일 오후 3시 제2청사에서 2026년 을지연습 연계 드론테러 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훈련으로 마련된 이날 현장에는 이학수 시장과 이원택 도지사, 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비롯해 군과 경찰, 소방, 보건소, 정읍 여성자원민방위대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적 특수자전부대가 자폭형 무인기로 제2청사를 공격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시작됐다. 첫 번째 무인기 공격 직후 추가 무인기가 발견되자 청사 안에 있던 인원을 대피시키고 관계기관에 상황을 알린 뒤 현장을 통제했다.

이어 추가 무인기의 작동을 멈추고 폭발물을 찾아 제거했다. 군은 정찰용 무인기를 띄워 공격 조종자를 찾아 제압했다.

소방대원들은 불을 끄고 옥상에 고립된 사람을 구조했다. 보건 인력은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기는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절차를 차례로 점검했다.

각 기관은 재난 대응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무인기 공격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이 발생했을 때 행정과 군,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훈련인 만큼 실전과 같은 자세로 지역 통합방위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

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한 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원택 지사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실시되는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실제훈련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읍=김대환기자

‘학생 중심 교육혁신 성과 인정’... 원광대, 올 대학혁신지원사업 A등급

원광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와 자체 성과관리 등 2개 영역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19일 원광대에 따르면, 원광대는 이번 평가에서 전공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지원, 융합형 교육과정 고도화 등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 성과를 높이 평

가받았다.

우선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광역 계열 모집과 자율전공학부를 운영 중이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학 특성과 분야인 생명산업

전주거 인력 양성을 위해 4+2 학위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중도 탈락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공·교

양·비교과를 연계한 WON+ 융합형 교육과정 등 선택형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융합형 리버럴아츠 교양 교과목 개발과 관련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자체 성과관리 영역에서는 학사 유연화 지수 등 5개 자율성과지표를 설정해 2025년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이재훈 기자

